

강진군, ‘배움으로 하나 되는 군민’ 수강생 모집

“여름아, 놀자! 무안군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강진군이 군민들의 역량 강화와 풍요로운 여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하반기 교육 과정은 군민들의 다양한 학습 수요를 반영해 건강·취미 교육 21개 강좌, 자기 계발 교육 20개 강좌 등 총 41개 강좌로 운영된다.

하반기 평생학습 교육은 8월 10일부터 강좌별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운영되며 수강료는 무료이나, 교재비와 재료비는 수강생이 부담해야 한다. 신청 접수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교육 분야별로 시작일을 달리한다. 요가, 생활요리, 서예 등이 포함된 건강·취미 교육 21개 강좌는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드림, 홈페이지, 목공예, 타로·미술심리상담사 자격증 과정 등이 포함된 자기 계발 교육 20개 강좌는 이달 16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두 분야 모두 접수 마감은 21일 오후 6시까지이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신청은 인터넷과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인터넷 접수는 ‘강진교육정보’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뒤 평생학습 강좌 신청 메뉴에서 하면 된다. 방문 접수는 강진읍 어울림센터 2층 강진군평생학습센터를 찾아 번호표를 발급받은 뒤 순서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1인당 최대 2개 강좌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강진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배움을 통해 삶의 활력을 찾고, 자아실현은 물론 전문 자격 취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다채롭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선착순 모집으로 초기에 마감될 수 있는 만큼 관심 있는 군민들께서는 모집 일정을 꼼꼼히 확인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하반기 평생학습 수강생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총무과 교육교류팀 또는 평생학습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전운재 기자



강진군청 전경 사진

/강진군 기획홍보실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례시 무안군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어린이들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선사할 공원 내 어린이 물놀이장을 오는 7월 1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원 내 물놀이장은 불무공원 모두누리놀이터 물놀이시설과 남악중앙공원 복합놀이시설 물놀이장(별난용 봉황이를 만난 날 어린이놀이터)으로, 평소에는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복합형 놀이공간으로 활용되며 여름철에는 시원한 물놀이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운영된다.

두 시설 모두 조합놀이대(위터슬라이드), 바다분수, 탈의실 등 다양한 놀이·편의시설을 갖춰 어린이와 가족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체계적인 수질관리와 전문 안전요원 상시 배치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물놀이 환경을 조성했다.

/서용운 기자

목포시, 국립대병원 개원 앞당긴다



강성휘 시장 모습

/목포 시청 제공

목포시(시장 강성휘)가 1990년 이후 36년 넘게 이어져 온 전남 서부권 주민들의 염원인 국립의과대학 및 국립대병원 설립을 위해 모든 행정·재정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가 지난 2일 양 대학에 제시한 「국립의대 신설 및 지원 방안」의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는 “전남 서부권은 상급종합병원 부재, 중증·응급의료 취약,

전문의 부족 등 의료취약성이 매우 심각한 지역인 만큼, 국립대병원 설립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 대학병원 설립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특별시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학병원 설립은 지역이나 대학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남 서부권의 의료공백이 깊어질수록, 이는 국립의대 신설의 본래 취지인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박성태 기자

“최대 80만 원”...함평군, 전입 청년 이사 지원사업 추가 모집

전남광주통합특례시 함평군이 지역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입 청년에게 최대 80만 원의 이사 비용을 지원한다.

함평군은 “오는 9월 말까지 타지에서 전입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청년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2026년 함평 전입청년 이사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다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함평군으로 이사 후 전입 신고를 마친 청년(19~49세) 세대주다. 지원금은 세대별로 전입 시 지출한 부동산 중개 보수비와 이사비 등 실비를 현금으로 지원한다.

지원액은 인구 유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입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50만 ▲2인 가구 60만

▲3인 가구 70만 ▲4인 이상 가구 80만 원 한도로 차등 지급한다.

특히 군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2026년 1월 1일 이후 이미 이사를 마친 청년들도 소급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신청은 오는 9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이문수 기자

신안군, 군민 참여 지속가능 정책자문위원회 출범

신안군 군수 김태성은 민선 9기 군민 주권 시대! 공정과 청렴! 현장 중심의 새로운 신안 미래!를 열기 위해 ‘군민 참여 지속가능 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방자치법」과 「신안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기반으로 구성되는 자문기구이다. 군정 핵심 추진과제인 ▲농어촌 르네상스 ▲육·해상 교통혁신 ▲해피100, 의료복지 ▲고품질 체류형 관광 육성 ▲신재생에너지 성장동력, 여기에 더해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기 위해 ▲소통분과를 둔다. 위원회는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춘 현장 전문가, 행정 전문가, 소통 전문가, 읍·면 대표 등을 위촉할 계획이다.

군민이 체감하는 정책 발굴과 군정 발전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태 기자

영암군, 공공 와이파이 이용 연 700만건 시대

영암군이 군민 누구나 데이터 걱정 없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온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가 연간 700만 건 이상 이용되며 군민 생활 속 디지털 복지로 자리 잡고 있다.

영암군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공공 와이파이 설치를 확대해 현재 관광지와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체

육시설, 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시설 등 138개 공공장소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가족복합센터, 새싹돌봄센터, 삼호청소년문화의집, 지역아동센터, 작은영화관, 청년소통센터 등 48곳에 공공 와이파이를 추가 구축해 청소년

과 군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공공 와이파이 이용도 꾸준히 늘고 있다. 연간 접속 건수는 2022년 550만 건에서 2023년 570만 건, 2024년에는 800만 건을 넘어섰으며, 2025년에도 722만 건이 이용되는 등 군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생활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문수 기자

